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2), 199-220 (2019)

표현용 어휘집 사용과 쓰기: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오미나

숙명여자대학교

The Use of Vocabulary Book and Writing: For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Learners

Oh, Min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2, 199-220.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40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learners in order to suggest the necessity of a level-specific dictionary that can help with the writing activitie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are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n intermediate vocabulary book was created for the experiment. The experimental group (20) performed the writing task referring to the intermediate vocabulary book for five weeks, and the control group (20) performed the writing task referring to the bilingual dictionary (Naver dictionary). After a five-week experiment, syntactic proficiency was measured based on the final test and the extensive writing of free writing.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better fluency, complexity, and accuracy than the control group. Through this, we saw the possibility of using a level-specific dictionary to improve the writing ability of Korean learner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eywords: productive dictionary, fluency, complexity, accuracy, syntactic mastery

OPEN ACCESS

https://doi.org/10.18627/jslg.35.2.201908.199

pISSN : 1225-4770
eISSN : 2671-6151

Received: July 15, 2019

Revised: August 05, 2019

Accepted: August 15, 2019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19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서 론

이 연구는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의 쓰기와 사전 사용에 관한 것이다. 쓰기는 이해 학습인 읽기와 달리 자신이 의도한 바를 글로 생산하는 표현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이미 학습한 어휘만으로는 많은 제약을 느낀다. 또한 Nation(1990:94)의 지적처럼 이미 충분한 양의 어휘를 학습한 학습자가 읽기 등 이해 학습에는 그 어휘를 훌륭하게 사용하지만 말하기 등의 표현 활동에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학습자들은 여러 전략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전이다.

Lew(2016)는 쓰기 활동에 최적화된 이중어 사전을 이용하여 쓰기를 했을 때 작문의 질이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쓰기 시험 중에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을 보고하였고, Rundell(1999)은 이중어 사전보다 단일어 사전이 쓰기에 훨씬 더 효과적임에도 학습자들은 단일어 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Christianson(1997)은 학습자들은 쓰기에 사용하는 단어 중 아주 적은 양(1.6%)의 단어만을 사전에서 검색하며, 그나마도 사전에서 검색한 단어의 많은 수(42%)가 오류로 나타나고 있어 언뜻 보기에는 쓰기 활동에서 사전 사용이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 오류의 비율이 전체 오류의 0.9%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사전 사용이 쓰기와 어휘의 생산적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tkins and Knowles, 1990; Ard, 1982; Celce-Muricia and Rosenzweig 1979; Meara and English, 1987; Summer, 1995; Christianson, 199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 연구들은 사전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전 검색 실패나 오류를 밝히는 실험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사전 사용이 쓰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논의가 부족하며, 사전을 참조하여 쓰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학습자 중 쓰기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일부의 학습자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쓰기 과제 수행 시 사전을 적절히 참조하여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작문 텍스트를 산출하는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이 사전을 사용할 수 없는 시험 상황의 쓰기에서는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데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 격차는 긴장도, 시간적 제약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은 대부분 네이버 사전(이중어 사전)을 사용하고 있다. 검색의 용이성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피상적이고 일회적인 학습으로 끝나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해용 사전을 표현 활동에 참조하기 때문에 대응어를 찾는 데만 활용되며, 숙달도보다 높은 수준의 대응어를 검색하는 경우 논항 구조나 통사적 제약, 연어 등의 정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예문을 옮기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학습자들은 쓰기 과제 수행 시 사전을 참조하여 작문을 하지만, 그것이 일회적 사용으로 끝나고 표현 어휘로 내재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 중 생산하는 작문과 쓰기 시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표현 어휘를 신장시키고 통사적 규칙에 맞는 문장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 참조 매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어 쓰기 교육에 있어 수준별 표현용 사전을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언어 참조 매체로 보고, 수준별 표현용 사전의 효용성을 밝히기 위한 실험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중어 사전을 참조하여 작문을 수행한 집단과 수준별 표현용 사전을 참조하여 작문을 수행한 집단의 쓰기 능력 향상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출판된 수준별 표현용 사전이 없기 때문에 실험을 위한 중급 표현용 어휘집[1]을 제작하여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5주 간 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후,이중어 사전을 사용하여 5주 간 쓰기 과제를 수행한 한국어 중급 학습자와 통사적 숙달도를 비교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사전 사용과 쓰기

제2 언어 학습에서 다독을 통한 우연적 어휘 학습이 강조되고, 의사소통 교수법이 외국어 교육의 주류를 이루는 1960

1) 실험을 위하여 제작한 중급 표현용 어휘집은 표제어가 1,200여 개에 불과하여 사전과 구별하여 어휘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년대~1980년대까지 사전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전 사용과 언어 학습 간의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사전이 특히 어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Bogaards, 2010; 배연경, 2013에서 재인용), 사전 사용의 유무보다는 사전의 유형에 따른 효과나 사전 사용의 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Rundell(1999)은 많은 학습자들이 작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일반화, 에둘러 말하기, 회피 등의 의사소통 전략(CS)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의미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는 있으나 명확성, 다양성, 생동감, 그리고 문체의 적합성을 상실하며 '나쁘다, 착하다, 크다, 행복하다, 중요하다' 등의 매우 일반적인 서술적 용어로 후퇴한다고 지적하였다. Bishop(2001)은 사전 사용 교육을 받은 학습들과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의 작문 수정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전자 그룹의 학습자들이 정확도와 문장 복잡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했다.

사전 사용에서 오랜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은 단일어 사전과 이중어 사전 사용 중 어떤 것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것이냐이다. 단일어 사전(monolingual dictionary)은 표제어와 뜻풀이가 하나의 언어로 되어 있는 사전이고, 이중어 사전(bilingual dictionary)은 표제어와 뜻풀이가 서로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사전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이중어 사전을 선호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2언어 교사들은 단일어 사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tkins and Knowles(1990)에서는 단일어 사전을 사용하는 학습자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학습자 75% 이상이 이중어 사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하위 수준의 학습자들 사이에서 더 높다고 밝혔다(Rundell, 1999에서 재인용). 한편 '이중어 사전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오류를 야기한다', '이중어 사전은 명백한 오류를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류를 강화한다(Atkins and Knowles, 1990; Ard, 1982; Celce-Muricia and Rosenzweig 1979; Meara and English, 1987;Summer, 1995; Christianson, 1997에서 재인용)등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자들도 이중어 사전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중어 사전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단일어 사전의 정보를 학습자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한다. 단일어 사전을 사용할 때 목표어(L2)로 기술된 뜻풀이와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오히려 읽기 이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Béjoint(2003)은 이중어 사전보다 단일어 사전이 영어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통념은 절반은 교육적이고 절반은 상업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전 사용자가 목표어의 뜻풀이와 정보를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단일어 사전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수준이라면 단일어 사전이 언어 수준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정영국, 2009에서 재인용). 또 단일어 사전은 목표어(L2)의 단어를 알고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어 사전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표현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더라도 쓰기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두 유형의 사전 중 어떤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실험을 통해 진행되었다. 박꽃새미(200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 이중어 사전은 맞춤법이나 의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반면, 단일어 사전은 활용법, 문법, 연어, 사용역을 검색하고 있으며 단일어 사전이 이중어 사전보다 어휘 사용 성공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원미진 · 주우동(2016)은 읽기 텍스트 이해에는 특정 유형의 사전 사용이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어휘의 장기 기억이나 표현 어휘 사용에는 단일어 사전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했다. 따라서 이해를 위한 어휘 습득의 경우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이중어 사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습자들의 장기 기억이나 생산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어휘 학습에는 단일어 사전을 사용하도록 교수 학습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들은 사전 사용이 쓰기 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보다 어휘의 생산적 사용에 단일어 사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다.

2.2 표현용 사전

언어 학습을 그 기능에 따라 표현 영역과 이해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학습자 사전도 그 기능에 따라 표현용 사전(productive dictionary)과 이해용 사전(receptive dictionary)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미옥· 정영국, 2002). '표현용 사전과 이해용 사전' 대신 '능동 사전(active dictionary)과 수동 사전(passive dictiona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Hartmann and James(1998)에서는 표현용 사전이란 텍스트의 생산과 같은 표현 과업을 돕기 위해 개발된 사전으로 일개어 사전 편찬에서는 주된 기능이 어휘 선택 제공인 시소러스가 대표적이며, 이개어 사전 편찬에서의 표현 사전의 주요 기능은 외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안의정, 2015:166에서 재인용). 최경봉(2008)에서는 특수 사전을 '일반 국어 사전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는 사전'과 '표현법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으로 나누고 후자에 '분류 사전, 관련어 사전, 관용어·속담 사전, 비속어 사전, 용례 사전, 문형 사전, 연어 사전, 어사 사전'을 들었다. 단일어 사전의 경우 이와 같은 특수 사전들이 표현용 사전이 될 것이며, 이중어 사전의 경우는 '모국어(L1)-목표어(L2)'로되어 있는 사전이 표현용 사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중어 사전은 표현 활동보다는 이해 활동에 적합한 사전이다. Svensén(2007)의 지적처럼 이개어 사전(이중어 사전)이 아닌 단일어 사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해와 표현 활동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지만(안의정, 2015:166에서 재인용), 표현법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포함하고 있더라도 쓰기 활동에 활용될 만큼 자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홍식(2010)은『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서상규 외)을 사전학적으로 고찰했는데, 외국어 화자가 목표어인 한국어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해용 사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형 정보가 제시된 점, 참고 박스를 통해 비슷한 다른 단어와의 의미 차이를 기술해 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표현용 사전으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홍식(2010:175)의 지적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외국어로 된 문장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단일어 사전이든 이중어 사전이든 표현용 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통사적 숙달도

통사적 숙달도란 '통사적 성숙도(syntactic maturity)와 같은 개념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적은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종종 통사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생산해 내는 능력과 동일시된다(박지순 · 서세정, 2009:152). 통사적 숙달도 측정은 쓰기 평가의 유용한 지표가 되는데[2] 학습자가 생산한 쓰기 텍스트를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방식이다. 제 2언어 습득 연구에서 통사적 숙달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유창성(fluency), 복잡성(complexity), 정확성(accuracy)이다.

유창성은 정해진 시간 안에 주저함이나 막힘 없이 언어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Ellis, 2009:139). 작문의 유창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텍스트 길이, 작문 당 단어 수나 T-unit 당 단어 수(Larsen-Freeman, 2006) 등이 사용된다. 복잡성은 정교한 언어를 생산하는 능력으로, 아직 완전히 내면화되지 않은 상위 언어 구조와 다양한 언어 구조를 사용하려는 학습자의 의지를 의미한다(Ellis, 2009:139). 이런 측면에서 문장의 복잡성은 한 문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절을 잇거나 포

2) 쓰기 평가는 통사적으로 복잡하고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능력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제2 언어 쓰기에서 통사적 숙달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함하느냐와 관련이 있다(김영주 외, 2013:223). 복잡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T-unit 당 절 수가 사용되나, 한국어에서 T-unit보다 문장 단위가 더 적절하기 때문에 문장 당 절 수로 분석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확성은 목표 언어의 규범을 얼마나 잘 생성하였는가를 의미하는데(Skehan, 1996:23), 무오류절 분석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유창성, 복잡성, 정확성 구인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수행에 대한 발달 양상을 기술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박지순·서세정(2009)는 한국어 쓰기의 통사적 숙달도 측정을 위한 12개의 지표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했음을 밝혔고, 특히 문장 당 평균 단어 수, 문장 당 평균 절의 수, 전체 절에서 무오류절이 차지하는 비율의 세 가지 지표를 유창성, 복잡성, 정확성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지표로 제시하였다. 김영주 외 3인(2013)에서는 언어권별 문어와 구어 산출 자료를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의 기준으로 분석하여 구어와 문어 능력 모두 숙달도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남주연 외 3인(2016)은 한국어 문어 산출에서 통사적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 길이에 따른 복잡성(문장당 단어 수, 문장당 어절 수, 문장당 절 수)과 문장 확장에 따른 복잡성(대등절과 내포절)을 분석하여 숙달도에 따라 산출 길이가 증가하였고, 내포절의 사용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복자(2015)는 세 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2급에서 6급까지 문어와 구어 산출 자료에 나타난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의 역동적 발달 과정을 살피면서 세 명 모두 문장 길이와 대등절·내포절 수에서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수준별 표현용 학습자 사전

3.1.1 수준별 표현용 학습자 사전의 필요성

S대학 어학당의 중급 학생 100명[3]을 대상으로 쓰기 과제 수행 시 사용하는 사전의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 1. 중급 학습자가 쓰기에 사용하는 사전 종류

국적	사용하는 사전
베트남	네이버 앱/인터넷 사전, 다음 앱/인터넷 사전
일본	라인(LINE) 사전, 네이버 앱/인터넷 사전, 다음 앱/인터넷사전, 구글 인터넷 사전
싱가포르	네이버 앱/인터넷 사전, 파파고 인터넷 사전
독일, 그리스	네이버 앱/인터넷 사전, 구글 인터넷사전
미얀마	다음 앱/인터넷 사전
러시아	네이버 앱/인터넷 사전, 다음 앱/인터넷 사전
미국	네이버 앱/인터넷 사전, 파파고 앱 사전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중국, 대만	네이버 앱/인터넷 사전

3) S대학 어학당은 1급부터 6급까지 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1-2급은 초급, 3-4급은 중급, 5-6급은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각 급은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본 연구의 대상 학습자는 3급이며 대부분 한국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학습자들이다.

<표 1>을 보면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이 쓰기를 할 때 사용하는 사전으로 '네이버 사전(앱)'이 압도적이다. 학습자들이 네이버 사전을 접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 자국의 한국어 교사 추천이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학습자들은 교환학생으로 만난 한국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여타 사전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소수 언어 학습자에게 지지를 얻고 있었다. 사전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정보를 얼마나 쓰기 쉽도록 제공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사전은 사용자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 모국어를 찾은 후 그에 해당하는 대응어를 찾는데,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이중어 사전의 많은 표제항들은 한 개 이상의 대응어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그 중 제일 처음 나온 단어를 쓰기에 사용하면서 의미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는 베트남 학습자의 작문의 일부이다.

(1) 다른 나라보다 각 베트남의 대학교는 자체 전문 분야를 가르친다. 그 이유는 각 학교가 다른 강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트남에 전문 대학교가 너무 많고 다양한다.

학습자가 초고에서 '강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의미를 물어본 결과 '강점'과 유사한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베트남어 사전에 가장 처음 나온 단어가 '강도'였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한다.

다음은 일본 학습자의 문장 만들기 예이다.

(2) [...에] 지원하다: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많은 것을 지원하신다.

'지원(志願)하다'는 문형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사전에 나온 동음이의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선택하였다. '지원(志願)하다'를 '지원(支援)하다'로 오인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중국과 일본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사전 사용 오류이다. 이것은 표현 활동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해 활동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전 사용 오류가 발생하며, 그 원인을 사전에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의들이 많다. 이 연구에서는 사전 사용 오류보다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숙달도보다 높은 수준의 단어를 검색하고 작문에 사용하지만 , 그 어휘들이 작문 이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어휘가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이미 한 번 학습한 단어를 등한시하고 자신의 숙달도보다 높은 수준의 단어를 찾아 작문을 하면서 어휘 자체에만 집중할 뿐 논항 구조나 문법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보다 그 양이 적으며, 이해 어휘에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해 어휘가 표현 어휘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쓰기 과제를 할 때 사전에서 숙달도보다 높은 수준의 단어를 검색하는 것보다 자신의 숙달도에 맞는 단어를 정확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고 있는 어휘를 더 확실하게 학습하고, 표현 어휘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준별 표현용 사전이 도움이 될 것이다.

3.1.2 중급 표현용 어휘집

수준별 표현용 사전 사용이 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준별 표현용 사전이 필요한데 출간된 사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집을 직접 제작하였다. 학습자가 이 어휘집을 표현 활동에 왕성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L1-L2의 이중어 형태가 이상적이겠으나, 학습자들의 국적이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단일어 사전이 표현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Ard, 1982; Atkins and Knowles, 1990; Celce-Muricia and Rosenzweig, 1979; Meara and English, 1987; Summer, 1995; Christianson, 1997에서 재인용, 박꽃새미, 2008; 원미진 · 주우동, 2016)을 토대로 단일어 어휘집으로 제작하기로 하였다[4].

중급 표현용 어휘집은 어휘에 관한 정보를 표제어, 어깨번호, 중요어 표시, 품사, 문형 정보, 뜻풀이, 예문, 관련어, 참고상자, 연어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1. 표제어 선정 : 배운 어휘를 정확하게 익히고 쓰기 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2급과 3급 주교재와 듣기/읽기 교재에 실린 단어 약 1,200개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1급 교재에 있는 단어를 표제어에 넣지 않은 이유는 3급 학습자들이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 1급 단어를 찾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5]. 1급에서 학습한 단어들은 이미 표현 어휘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면의 한계 등의 이유로 표제어에서 제외하였다. 표제어는 단어뿐만 아니라 구 구성도 수록하여[6] 작문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조사, 어미, 접사 등의 문법 형태소는 이해 활동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표제어로 올리지 않았다. '-하다/되다' 파생어, '-적, -이, -히, -거리다, -스럽다'등 파생어의 경우는 부표제어가 아닌 주표제어로 올렸다. 2급과 3급 교재에 고유 명사가 많았는데, 그 뜻풀이가 어렵기 때문에 옆에 그림이나 사진을 첨부하였다.

2. 어깨 번호 : 동음이의어의 경우 어깨 번호를 통해 표제어를 달리 했는데, 배열 순서는 한국어 기초사전, 한국어 사전, 한국어 학습자 사전을 참고하였다.

3. 중요어 표시 : 중요어는 ★로 표시하였는데, 0개부터 3개까지 있다. ★의 개수는 한국어 기초사전을 따랐다.

4. 품사 : 품사 정보 역시 한국어 기초 사전을 따랐는데, 구 구성의 표제어의 경우는 품사 정보를 넣지 않았다. 한 단어가 명사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분할 배열하였다.

5. 문형 정보 : 동사와 일부 형용사의 경우 문형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주어에 해당하는 [...이/가]는 제외하여 보기 쉽게 하였다.

6. 뜻풀이 : 한국어 기초사전, 한국어 사전, 한국어 학습자 사전을 참고하여 풀이하였으며, 2급과 3급 교재에 없는 단어로 뜻풀이가 된 경우, 따로 표제어로 실었다. 다만 고유 명사를 위한 뜻풀이는 따로 표제어로 싣지 않았다. 다의어의 경우는 1,2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한국어 기초사전, 한국어 사전, 한국어 학습자 사전을 참고하여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것만 보였다.

7. 예문 : 2급과 3급 교재에 나온 예문을 그대로 실었는데, 문형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예문의 경우 한국어 기초사전, 한국어 사전,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예문을 참고하였다. 문형에 주의하여 작문을 할 수 있도록 예문의 해당 조사를 진하게 하고 밑줄 표시를 하였다.

---

4) 중급 표현용 어휘집을 제작하는 데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교재 – 숙명여자대학교 아하 한국어2, 아하 한국어3, 듣기/읽기 내부용 교재 2. 사전- 한국어 기초 사전(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서상규 외), 한국어 사전(임홍빈),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유의어 사전(조민정 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김하수 외)

5) 학습자들이 사전을 참조하는 어휘의 종류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앞서 두 학기에 걸쳐 작문 과제마다 사전에서 찾은 단어 목록과 이유를 간략하게 기록하게 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주로 철자 확인, 의미 확인, 문형 확인을 위하여 2급과 3급에서 배운 단어를 찾았으며, 일부 학생들이 철자를 확인하기 위해 1급에서 배운 단어를 찾았다.

6) '2남 1녀'와 같은 구성도 교재에 수록되어 있어 표제어로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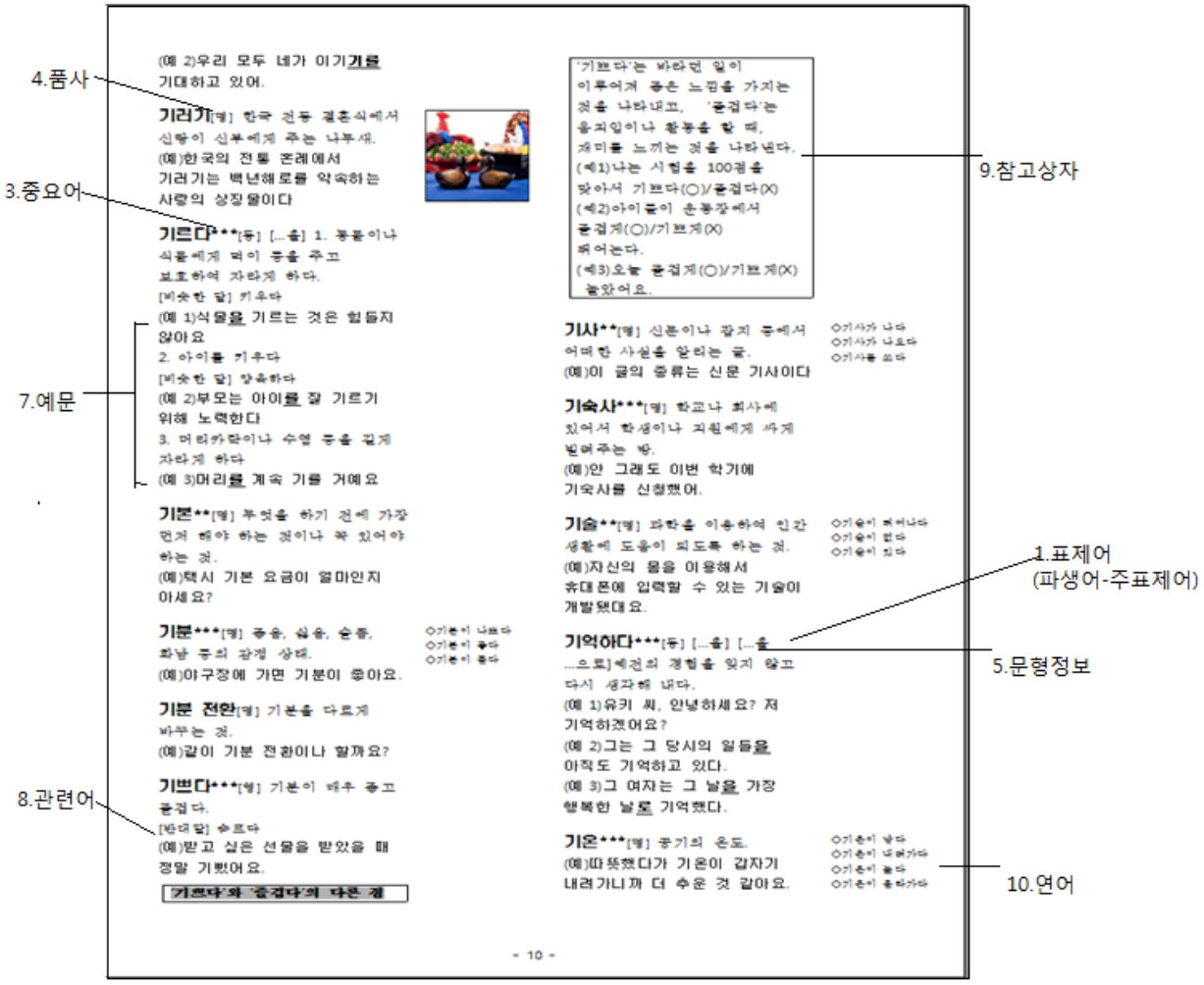


그림 1. 중급 표현용 어휘집 예

8. 관련어 : 한국어 기초사전, 한국어 사전, 한국어 학습자 사전, 한국어 유의어 사전, 한국어 연어 사전을 참고하여 비슷한 말, 반대되는 말, 관계되는 말을 실었고, 그 어휘가 표제어에 없는 경우 따로 표제어로 추가하였다.

9. 참고 상자 : 한국어 사전,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참고 상자를 참고하여 쓰임이나 의미가 비슷한 말들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10. 연어 : 한국어 연어 사전을 참고하여 옆 단에 연어 목록을 실었다. 연어는 연어핵의 미시구조에서 제시하였는데, 표제어와 결합하는 선행어와 후행어를 최대한 실으려고 하였다. 동사나 형용사뿐만 아니라 관형사, 명사, 부사 등이 있다.

11. 부록 : 속담과 관용 표현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2급과 3급 교재에 나온 것을 부록에 따로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급과 3급에서 배운 문법 목록과 함께 각 문법마다 설명, 예문을 넣어 학습자들이 작문을 할 때 꼭 문법을 참고하도록 유도하였다. 부록의 마지막에는 2급과 3급의 각 과에 주제와 함께 새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우선 목록을 훑어 보고 찾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지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어와 관용 표현

검사를 받다	자동차가 있으면 일 년에 네 번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심을 하다	그 사람은 언제나 결심을 했지만 늘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고개를 푹 숙였다.
골을 넣다	골을 넣은 선수는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골프를 치다	이번 주말에 같이 골프나 칠까요?
관련이 있다/없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내다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구멍이 나다	양말에 구멍이 났어요.
기분이 상하다	엄마에게 야단을 맞은 동생이 기분이 상했는지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다.
기사가 나다	신문에 물가가 또 오른다는 기사가 났다.
기사가 나오다	요즘은 신문에 북한에 관한 기사가 자주 나와요.
기사를 쓰다	내일까지 기사를 다 써야 한다.
기술이 뛰어나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
기술이 없다	기술이 없으면 취직하기 어렵다.
기술이 있다	요즘은 경기가 나빠서 기술이 있어도 취직하기 어렵다.
기억이 나다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온이 낮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기온이 낮으니까 따뜻하게 입어라.
기온이 내려가다	어제보다 3도쯤 기온이 내려갔다고 한다.
기온이 높다	요즘은 계속 기온이 높아서 에어컨이 잘 팔린다.
기온이 올라가다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올라가서 좀시 더울거라고 한다.
기운을 차리다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죠.
기회가 되다	이번 사건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기회가 생기다	기회가 생기면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기회를 놓치다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길을 건너다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펴야 합니다.
길을 걷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길을 비키다	대형 트럭이 지나가니 길을 비켜 주세요.
길을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다.
길을 찾다	서울은 너무 복잡해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 70 -

출장을 가다	아빠는 오늘 부산으로 출장을 가셨다.
춤을 추다	수미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다.
취업을 하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을 했다.
칠을 하다	마루를 니스로 칠한다.
칠판을 지우다	수업이 끝나자 민수는 지우개로 칠판을 지웠다.
칭찬을 듣다/받다	아이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한다고 칭찬을 들었다.
칭찬을 하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 드린 누나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특징을 보이다	이 영화는 대사가 거의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징이 있다	그 환자들은 모두 10(십)년 이상 담배를 피웠다는 특징이 있다.
표시가 나다	잠을 못 잤더니 얼굴에 표시가 나네요.
표시를 하다	제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숙을 구하다	하숙을 구하고 있는데 좋은 곳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하숙을 치다	방이 많은데 하숙을 한번 쳐 보세요.
하숙을 하다	시청 근처에서 하숙을 합니다.
하품을 하다	졸리는지 아이가 하품을 했다.
하품이 나다/나오다	우린 이 선생님의 하품 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했다.
한잔 하다	우리 오늘 한잔할까요?
한턱 내다	장학금을 받아서 친구들에게 한턱 냈다.
해가 뜨다	요즘엔 몇 시에 해가 뜹니까?
해가 바뀌다	해가 바뀌어 2005(이천오)년이 되었다.
해가 지다	벌써 해가 졌네요.
해를 넘기다	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 말까지 끝내도록 하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 얘기는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야.
화가 나다	선생님이 화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해요.
효과가 느리다	한약은 효과는 느리지만 몸 전체를 서서히 좋게 해 줍니다.
효과가 빠르다	효과가 빠른 감기약
효과가 없다	이 약은 코감기에는 별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달리기 운동은 심장을 튼튼히 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휴가를 가다/떠나다	영희이는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다	이번 여름에 일본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힘이 나다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나요.

- 79 -

그림 2. 중급 표현용 어휘집 부록1 연어 및 관용표현

2급, 3급 문법

1. 간접화법
2. 거나
3. 게
4. 고
5. 고 나서
6. 고 싶다
7. 고 싶어하다
8. 고 있다
9. 고야 말겠다
10. 기
11. 기
12. 기 때문에
13. 기 전에
14. 기로 하다
15. ㄴ/는 다면
16. 느라고
17. 는 대신에
18. 는 중이다
19. 는지 알다/모르다
20. 다가
21. 더라도
22. 면
23. 도록
24. 보다 더/덜
25. 사동사
26. 아/어 보이다
27. 아/어 있다
28. 아/어/여 놓다
29. 아/어/여 보니까
30. 아/어/여 보다
31. 아/어/여 주다
32. 아/어/여다가
33. 아/어/여도
34. 아/어/여서
35. 아/어/여야 하다
36. 아/어야
37. 아/어야 되다
38. 아/어지다
39. 았/었다가
40. 었던
41. 으니까
42. 으러 가다/오다
43. 으려면
44. 으면
45. 으면 되다
46. 으면 안 되다
47. 으면 좋겠다
48. 으면서
49. 은 적이 있다
50. 은 지 이/가 되다
51. 은 후에
52. 은/는 것 같다
53. 은/는 모양이다
54. 은/는 척하다
55. 은/는 편이다
56. 은/는지 은/는지
57. 은데/는데
58. 을 것이다
59. 을 때
60. 을 만하다
61. 을 뻔하다
62. 을 뿐만 아니라
63. 을 뿐이다
64. 을 수 있다/없다
65. 을 줄 알다/모르다
66. 을까 봐서
67. 을까 하다
68. 을수록
69. 을지도 모르다
70. 이/가 아니라
71. 이라고 하다
72. 자마자
73. 지 말고
74. 지 말다
75. 지만
76. 피동사

1. 간접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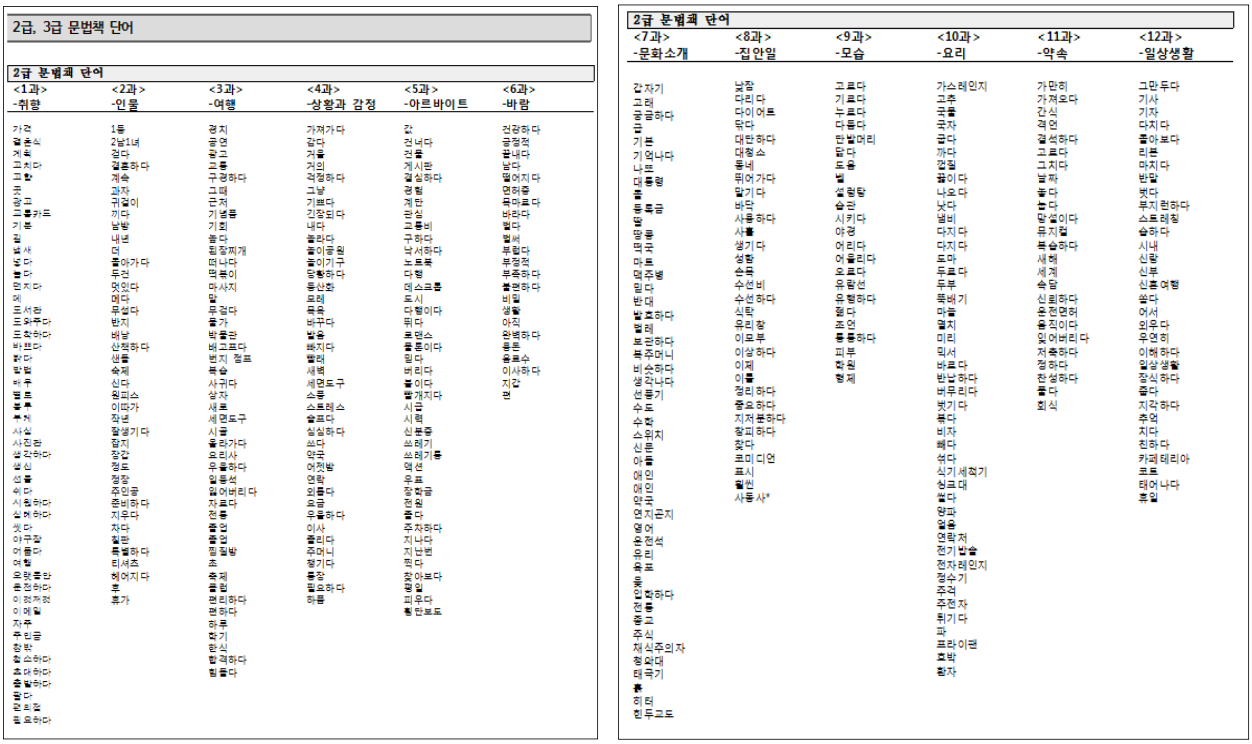
		과거	현재	미래
평서문	동사	-았/었다고 한다	-ㄴ/는다고 한다	-을 거라고 한다
	형용사		-다고 한다	
	명사	-이었/였다고 한다	-(이)라고 한다	
의문문		-았/었냐고 한다	-냐고 한다	-을 거냐고 한다
명령문			-(으)라고 한다 -달라고 한다	
청유문			-자고 한다	

1. 평서문
선생님 : "어제 비가 왔어요." (동사 과거)
→ 선생님이 어제 비가 왔다고 한다
선생님 :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동사 현재)
→ 선생님이 지금 비가 온다고 한다
선생님 :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동사 미래)
→ 선생님이 내일은 비가 올 거라고 한다
선생님 : "어제 날씨가 추웠어요." (형용사 과거)
→ 선생님이 어제 날씨가 추웠다고 한다
선생님 :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형용사 현재)
→ 선생님이 오늘은 날씨가 춥다고 한다
선생님 : "내일도 오늘처럼 추울 거예요." (형용사 미래)
→ 선생님이 내일도 오늘처럼 추울 거라고 한다
선생님 : "저는 작년에 미혼이었어요." (명사-이다 과거)
→ 선생님이 작년에 미혼이었다고 한다
선생님 : "저는 지금 기혼이에요."(명사-이다 현재)
→ 선생님이 지금 기혼이라고 한다

2. 의문문
선생님 : "어제 비가 왔어요?" (동사 과거)
→ 선생님이 어제 비가 왔냐고 한다
선생님 :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동사 현재)
→ 선생님이 지금 비가 오냐고 한다
선생님 : "내일은 학교에 올 거예요?" (동사 미래)
→ 선생님이 어제 비가 왔다고 한다
선생님 : "어제 날씨가 추웠어요?" (형용사 과거)
→ 선생님이 어제 날씨가 추웠냐고 한다
선생님 :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형용사 현재)
→ 선생님이 오늘은 날씨가 춥냐고 한다

- 81 -

그림 3. 중급 표현용 어휘집 부록2 문법 목록



2급, 3급 문법책 단어

2급 분법책 단어

<1과> -취향	<2과> -인물	<3과> -여행	<4과> -상황과 감정	<5과> -아르바이트	<6과> -바람
가걱	1등	경치	가져가다	값	건강하다
결혼식	2남1녀	공연	갚다	건너다	긍정적
계획	갚다	광고	겨울	건물	끝내다
고치다	결혼하다	고등	게임	게시판	남다
고향	계속	구경하다	걱정하다	결심하다	떨어지다
곧	과자	그때	그날	경험	면허증
광고	귀걸이	근처	기쁘다	계단	유머르다
그릇카드	끼다	기념품	긴장되다	끈실	바라다
기분	남방	기회	내다	교통비	벌다
길	내년	놀다	놀라다	구하다	벌써
남 사	더	뒤장찌개	놀이공원	낙서하다	부럽다
넓다	돌아가다	떠나다	놀이기구	노트북	부정적
놀다	듣건	만들이	당황하다	다행	부주하다
단지다	멋있다	마사지	동산화	대스크톱	불편하다
메	메다	말	뜨레	도시	비밀
목걸	무섭다	무겁다	뮤육	다행이다	생활
사진관	반지	물가	바꾸다	뒤다	아직
소화하다	배낭	박물관	밥솥	로맨스	완벽하다
바쁘다	산책하다	배고프다	빠지다	룸메이다	용돈
받다	선물	버지 점프	빨리	일다	슬픈수
밥법	숙제	볶음	사벽	버리다	이사하다
배우	신다	사귀다	세면도구	돌이다	지갑
벌로	원피스	상자	소등	빨개지다	편
불쌍	이따가	새로	스트레스	시급	
부끄	잔년	세면도구	슬프다	시력	
사실	잘생기다	시골	심심하다	신분증	
사진관	잠지	올라가다	쓰다	쓰레기	
생각하다	장갑	오리사	안국	쓰레기통	
생신	정도	우울하다	어젯밤	액션	
선물	정장	입등석	연락	우표	
쉬다	주인공	잃어버리다	외롭다	장학금	
시원하다	준비하다	자르다	요금	전원	
싫어하다	지우다	전통	우울하다	좋다	
씻다	치다	졸업	이사	주차하다	
아무짐	질만	졸업	좋리다	지나다	
어둡다	특별하다	짐질방	주머니	지난번	
여행	티셔츠	초	참기다	찍다	
요랑좋한	헤어지다	축제	통장	찾아보다	
운전하다	호	출발	필요하다	평일	
이었꺼었	혼가	편리하다	하품	피우다	
이에일		편하다		행 단보도	
자주		푸른			
주인공		학기			
창밖		한식			
청소하다		합격하다			
초대하다		힘들다			
출발하다					
팔다					
포장					
필요하다					

2급 분법책 단어

<7과> -문화소개	<8과> -집안일	<9과> -모습	<10과> -요리	<11과> -약속	<12과> -일상생활
갑자기	낮잠	고르다	가스레인지	가만히	그만두다
고래	다리다	기르다	고추	가져오다	기사
궁금하다	다이어트	누르다	국물	간식	기자
금	닦다	다물다	국자	격언	다치다
기분	대만하다	단발머리	굽다	결석하다	돌아보다
기억나다	대청소	닮다	까다	고르다	리본
나쁘	동네	도울	깔질	그치다	마치다
대통령	뛰어가다	벌	끓이다	날짜	반말
돌	말기다	설렁탕	나오다	놓다	벗다
동특금	바닥	습관	낮다	만다	부지런하다
밥	사용하다	시키다	냄비	말씀이다	스트레칭
방문	사불	아경	다지다	뮤지컬	슬하다
먹국	생기다	어리다	다지다	복습하다	시내
마트	설합	어울리다	로마	새해	신랑
대주병	손목	오르다	두르다	세계	신부
밀다	수선비	유람선	두부	속담	신혼여행
반대	수선하다	유행하다	뚝배기	신뢰하다	쓸다
밥흐하다	식탁	젊다	마늘	온전면허	어서
벨레	유리잔	조언	맵치	움직이다	외우다
보관하다	이모부	통통하다	미리	잊어버리다	우연히
북주머니	이상하다	피부	밀서	저축하다	이해하다
비슷하다	이제	화원	바르다	정하다	일상생활
생각나다	이불	형제	반날하다	찬성하다	장식하다
선풍기	정리하다		버무리다	줄다	줄다
수도	중요하다		벗기다	회식	지각하다
수학	지저분하다		볶다		추억
스위치	장피하다		비자		치다
신문	젖다		빼다		친하다
아들	코미디언		식다		카페테리아
애인	표시		식기세척기		코트
애인	월씬		싱크대		태어나다
약국	사동사*		썰다		휴일
인지곤지			양파		
영어			얇음		
온전석			연락처		
우리			전기밥솥		
위로			전자레인지		
음			정수기		
입학하다			주걱		
전통			주전자		
중고			튀기다		
주식			파		
채식주의자			프라이팬		
청와대			호박		
태극기			황자		
홍					
히터					
힌두교도					

그림 4. 중급 표현용 어휘집 부록3 단어 목록

이러한 기준으로 제작한 중급 표현용 어휘집과 통제 집단이 참조한 이중어 사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형 정보에 주의를 기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쓰기 과제 수행 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게 사전에서 문형 정보를 확인한 후 작문을 하도록 요구하지만, 네이버 사전의 경우 언어에 따라 문형 정보가 아예 없거나 하단에 따로 표시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문형 정보를 보지 않는다. <그림 5>는 베트남어 사전의 일부인데, '기르다'를 검색하면 첫 화면에 왼쪽과 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베트남어 단어로 검색했을 때도 동일한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첫 화면의 검색에서 멈춘다. 일부 학습자들은 예문을 보기 위해 표제어를 클릭하여 오른쪽 화면에 다다르지만 다의어의 경우 똑같은 문형이 각각의 의미마다 표시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의어의 여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여 네이버 사전을 검색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 화면을 벗어난 과다한 정보는 오히려 검색에 지장을 준다. 중급 표현용 어휘집은 이런 점을 보완하여 뜻풀이 앞에 문형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예문에도 진한 글씨와 밑줄을 그어 논항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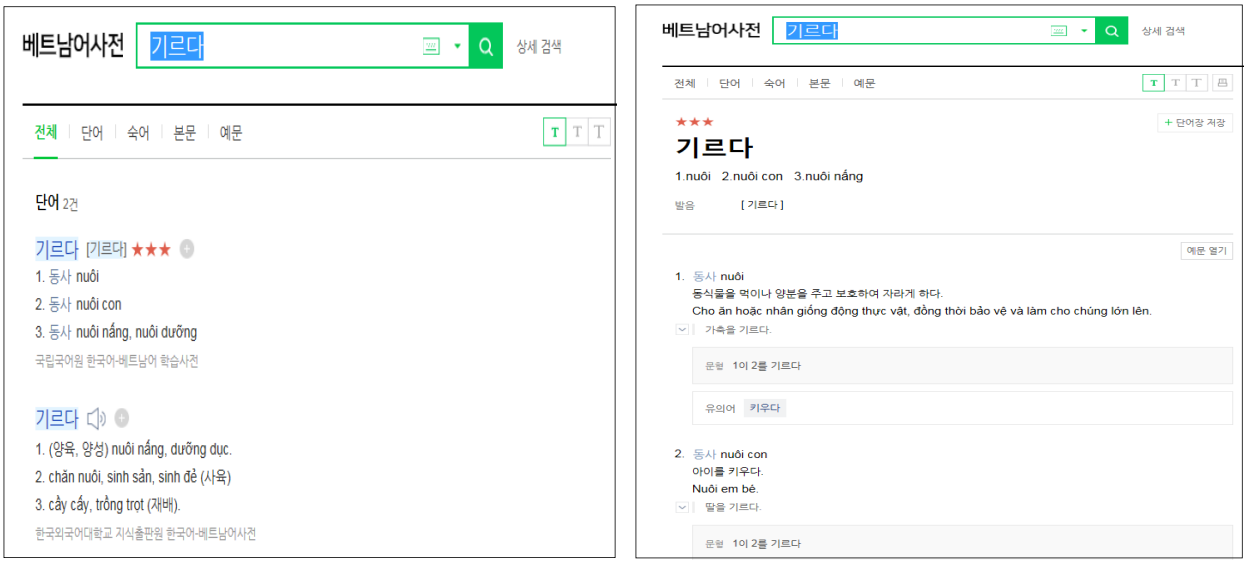


그림 5. 네이버 베트남어 사전

둘째, 새로운 어휘를 찾기보다 배운 어휘를 활용하여 작문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은 부록에 있는 단어 목록을 보고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상기할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단어는 다시 어휘집을 찾음으로써 문형 정보뿐만 아니라 연어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급 표현용 어휘집의 첫 번째 예문은 학습자들이 교재에서 이미 한번 접한 예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표현 어휘를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학습한 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문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작문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법을 확인하기 위해 교재를 꺼내 책장을 뒤적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중급 표현용 어휘집은 부록에 학습자들이 2급과 3급에서 배운 문법 목록을 제시하고 설명과 예문, 통사 정보를 수록하여 배운 문법을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연구 대상 및 절차

3.2.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참여자는 S대학 어학당의 중급 학습자 40명이다.[7]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사전 사용 기술 부족이 능숙도가 중급 정도인 학습자들에게서 두드러지기 때문인데(배연경, 2013:119), 특히 자신의 숙달도보다 높은 수준의 단어를 작문에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학습자를 초급이나 고급보다 중급에서 많이 마주친 경험에 근거한다. 초급은 사전보다는 단어 목록을 참조하게 마련이고, 고급 수준의 학습자는 유능한 사전 사용자인 경우가 많다. 강정희(2018)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어휘를 측정하여 학습자의 어휘력 발달과 어휘 사용 양상을 고찰했는데, 4급(중급)에서 어휘 구현수와 유형수 모두 급격하게 증가한 후 5급(고급)에서 다시 감소하였다. 초급에서 학습해야 하는

7) 중급 학습자 40명이 모두 같은 시기에 실험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에 걸쳐 40명의 쓰기 자료를 수합하였는데, 그 이유는 실험 조건(①중간 고사 이후 모든 작문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 ② 모든 작문 과제를 수행할 때 반드시 이중어 사전이나 중급 표현용 어휘집을 사용한 학습자) 에 부합하여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 2년 간 교재와 교사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양보다 중급에서 학습해야 할 어휘의 양이 많은데 이것이 표현 어휘로 실현되는 것은 중급 후반인 4급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내재화하는 단계는 중급 전반인 3급일 것이다. Rundell(1999:37)은 숙련된 단계 이전의 학습자들에게 성공적인 언어 생산은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언어 규칙과 통사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를 전체 문맥에 적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문법 역시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3급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배운 문법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어휘 능력과 더불어 쓰기 능력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준별 표현용 사전을 참조하여 작문을 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단계를 3급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집단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집단	인원	국적 분포
통제집단	20	그리스,대만, 리투아니아, 베트남(6),싱가폴,알바니아,우즈베키스탄. 영국(2),중국(4),프랑스(2)
실험 집단	20	대만(2),독일, 미국,미얀마,베트남(2),영국,인도네시아,일본(8),중국,프랑스(2)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6개월-1년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2급을 수료하고 3급으로 진급한 학생이거나 배치고사에서 2급에 합격한 학습자들로 수준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통제 집단은 이중어사전을 사용하여 작문 과제를 수행한 집단이고, 실험 집단은 최대한 이중어사전 참조를 자제하고 중급 표현용 어휘집을 사용하여 작문 과제를 수행한 집단인데, 실험 집단의 선별은 학습자들의 자원에 의한 것이다. 실험에 앞서 두 집단의 쓰기 실력이 동일한 수준인지 검증하기 위해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사는 10주 과정 중 5주차에 치러지는 쓰기 중간고사 점수로 하였다[8]. 중간고사 점수를 동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험이 중간고사 이후 5주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두 집단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이중어 사전 집단과 중급 표현용 어휘집 집단 동질성 검사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이중어 사전(통제 집단)	20	38.85	4.40	-0.921
중급 표현용 어휘집(실험 집단)	20	40.10	4.18	

* $p < 0.05$, **$p < 0.01$, ***$p < 0.001$

두 집단의 점수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9]. 평균 점수는 이중어 사전 집단(통제집단) 38.85점 , 중급 표현용 어휘집 집단(실험집단) 40.10으로 실험집단의 평균점수가 통제집단보다 1.25점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0.921(0.3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8) 중간고사 문항은 '단어 문장 쓰기(5문항)-문단 완성하기(3문항)-긴 글쓰기(1문항)'이며, 시험 시간은 50분이다. 이 중 긴 글쓰기(50점 배점)가 연구 분석 자료이다. 긴 글쓰기의 주제는 '자신의 나라 학교 소개/자신의 꿈' 중 선택이며, 분량은 300자이상이다.

9) 두 집단의 평균 점수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선정할 때, 학습자의 자율에 맡긴 데서 기인한다. 중급 표현용 어휘집을 사용할 경우, 이중어 사전의 사용을 자제하고 어휘집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줄 학습자를 선정해야 했다. 그리고 중급 표현용어휘집에 큰 관심을 보인 학습자는 대부분 쓰기에 적극적인 학생들이어서 중간고사 쓰기 점수도 약간 우위에 있다.

3.2.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학기가 시작되고 5주차 중간고사 전까지 두 집단 모두 자유롭게 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때 쓰기 과제마다 사전을 참조한 단어 목록을 쓰게 하였으며, 사전을 1회 미만 사용하는 학습자를 관찰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작문 과제는 6개이며 주제는 다음과 같다.[10)]

표 4. 작문 주제 1

과	주제	목표 문형, 어휘
도입과	방학 동안 한 일에 대해 쓰기	2급에서 배운 문법과 어휘 활용 유도
1과	서울	-어다가, -을 뿐이다
2과	학교 생활	-어 놓다, -었다가, 학교 생활 관련 단어
3과	직업 찾기	-어도, -고야 말겠다, 직업 선택 기준 단어
4과	관광	-어 보니까, -을 만하다, 여행 관련 단어
5과	인간관계	-은 적이 있다, -은 편이다, 성격 관련 단어

둘째, 중간 고사 이후 '중급 표현용 어휘집'을 소개하고 활용 의사가 있는 학습자를 선별하였다. 이때 최대한 이중어 사전을 사용하지 않고 '중급 표현용 어휘집'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급 표현용 어휘집' 집단(실험집단)은 최대한 이중어 사전 사용을 자제하면서 쓰기 과제를 수행하였으며[11)], 나머지 학습자들은 중간고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중어 사전을 이용하여 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두 집단 모두 쓰기 과제마다 사전을 참조한 단어 목록을 쓰게 하였다.

셋째, 기말 고사와 기말 고사 이후 자유 쓰기[12)]의 작문 결과를 수집하여 두 집단 간 쓰기 실력 향상을 비교하였다. 중간과 기말 고사 결과는 숙달도를 평가하기 보다는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숙달도 평가를 위해 기말 고사 이후 자유 쓰기를 실시하였다. 중간 고사 이후 작문 과제는 5개이며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5. 작문 주제 2

과	주제	목표 문형, 어휘
6과	의생활	-어 있다, 피동사
7과	식생활	간접화법, 요리 어휘
8과	주거생활	-은지 –은지, -은 모양이다, 주거 생활 관련 단어
9과	대중문화	-기 좋다, -은가 보다, 대중문화 관련 단어
10과	어제와 오늘	관형사형 과거 '-던/었던', 과거와 현재 비교

10) S대학의 중급(3급) 쓰기 교재는 '어휘연습 (어휘로 문장 만들기)- 문법 연습(문법을 이용하여 문장/문단 만들기) - 긴 글쓰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어휘와 문법, 긴 글쓰기 주제는 '문법/말하기' 시간에 배운 것을 확장하여 작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1) 실험을 위해서 학습자의 표현 욕구를 좌절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중급 표현용 어휘집 부록에 수록된 단어 목록을 보고 찾고자 하는 단어가 없을 때는 이중어 사전을 찾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중어 사전을 찾은 후에는 반드시 중급 표현용 어휘집에 그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중급 표현용 어휘집에도 실려 있지 않고, 이중어 사전에 문형 정보가 없는 경우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이 5개의 작문을 하면서 중급 표현용 어휘집에 없는 단어를 검색한 것은 평균 1.2회정도였다.

12)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단어 문장 쓰기(5문항)-문단 완성하기(3문항)-긴 글쓰기(1문항)'이며, 시험 시간은 50분이다. 이 중 긴 글쓰기(50점 배점)가 연구 분석 자료이다. 긴 글쓰기의 주제는 '과거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일/ 한국에 오기 전(또는 10년 전)과 지금 달라진 점'이며, 분량은 400자 이상이다. 자유작문의 주제는 '3급을 마치며'이고, 분량 제한은 없으며 과제 작성 시간은 40분이다.

3.3 통사적 숙달도 향상

3.3.1 통사적 숙달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유창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작문 당 문장 수, 문장 당 어절 수를 설정하였다. 작문 당 문장 수는 작문의 길이와 관계된 것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문장 당 어절 수는 문장의 평균 길이를 의미하므로 역시 유창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복잡성은 문장 당 절 수를 설정하였는데, 문장 당 절 수는 통사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문장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에 더해 내포절의 유형을 분석하여 복합성의 질적 향상도 살펴보았다. 정확성은 오류없는 문장과 절이 전체 작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작문 당 무오류문 수, 문장 당 무오류절 수를 설정하였으며, 추가로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통사적 숙달도 기준[13)]

통사적 숙달도	유창성	1. 작문 당 문장 수 2. 문장 당 어절 수
	복잡성	3. 문장 당 절 수
	정확성	4. 작문 당 무오류문 수 5. 문장 당 무오류절 수

3.3.2 자료 분석[14)]

통사적 숙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기 텍스트를 분석할 때, 문장[15)], 절, 단어 등 분석 단위에 대한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결된 내용의 단위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어가 생략되었더라도 종결어미로 끝나는 것을 대상으로 했다[16)].

다음으로 절은 대등절과 내포절로 나누고, 대등절은 '-고,-으며,-지만' 등의 대등적 연결어미가 결합된 선행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포절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을 분석하였는데[17)], 명사절은 '-음,-기,-는 것,-는지' 등과 결합된 절이고, 관형절은 '-은,-는,-던,-을' 등의 관형형 어미와 결합된 것이다. 부사절은 종속 접속을 포함한 것으로 '-면, -아서, -게, -도록, -을수록' 등의 어미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을 분석하였다. '-기 위해서, -기 전에, -은 후에, -기 때문이다, -은/는/을 것이다, -은가 보다, -은 지 – 이/가 되다, -은/는지 알다/모르다' 등의 표현 항목은 명사절과 관형절에서 제외하였는데, 학습자가 내포를 통해 문장 구조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법 형태로 학습하여 사용한 것으로 복장성을 측정하는데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18)]. 또한 '예쁜 여자'와 같이 '형용사+관형형 어미 – 은'도 내포를 통한 문장의 확대가 아니라

13) 이와 같은 5개의 지표를 선정하기 전 총12개의 지표를 분석해 보았는데, 중복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표는 이 연구에 제시한 5개였다.
14) 자료 분석은 중급 학습자 40명의 중간시험-기말시험-자유작문 텍스트(120개 작문 총 10,213어절)를 입력한 후,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품사를 부착하였다. 그 후 10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 2명이 교차 검토하며 기준에 맞게 품사 부착 오류를 수정하였다.
15) 영어 분석의 T단위를 기본 단위로 하지 않고, 문장을 기본 단위를 한 이유는 한국어에서는 T단위보다 문장 단위의 분석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김영주 외, 2003; 박지순·서세정, 2009; 남주연 외 , 2016).
16) 총 60개의 쓰기 텍스트에서 삭제된 비종결 문장은 단 2개뿐이었다.
17) 서술절은 학습자 전체 120개 작문 텍스트에서 8 문장이 있었는데, 서술절을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서술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서술절이 문장을 확장하기보다는 문장의 주어를 주제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18) 이와 같은 표현 항목이 근본적으로 학습자가 문장 구조를 확장해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복자, 2015:62)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명사절이 한정된 표현항목으로 나타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복합성 숙달도를 구분하는 데 유의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

단순 수식으로 보아 관형절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판별은 학습자의 띄어쓰기를 최대한 인정하여 '공부하다'의 경우 한 단어로, '공부 하다'의 경우는 두 단어로 보았다[19].

3.3.3 오류 판정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류가 없는 문장과 절을 판정하기 위해서 오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오류로 보았다.

첫째, 철자 오류이다. 철자 오류는 초·중급 학습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이기 때문에 철자 오류가 있는 문장이나 절을 제외할 경우, 분석할 수 있는 절과 문장이 많지 않다. 따라서 단순 철자 오류는 오류로 보지 않았다. 다만, 한 음절에 두 음소 이상의 철자 오류가 발생하여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오류로 판정하였다.

둘째, 문장 안에서의 오류만 오류로 보았다. 이에 따라 '그러나, 그래서, 그러니까' 등의 접속어 오류는 오류로 판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뒤 문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거나 상반되는 정보인 경우에는 오류로 판정하여 제외하였다.

셋째, 문법 오류는 활용 오류와 의미 오류 모두를 오류로 보았다.

넷째, 어휘 오류는 의미 오류를 주된 오류로 평가하면서 호응과 논항 구조 오류도 오류로 판정하였다.

다섯째, 조사가 생략되어 다소 어색한 문장은 오류로 판정하지 않았다.

여섯째, 어순이 어색하여 정보 전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오류로 판정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유창성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유창성 향상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기말 시험과 자유 작문의 '작문 당 문장 수, 문장 당 어절 수'를 측정하였다.

먼저 기말고사의 평균 문장 수(<표 7>)를 분석한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실험 시작 전인 중간고사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실험 종료 후 두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제 집단의 문장 수가 실험 집단보다 많아 언뜻 보기에는 통제 집단의 유창성이 높아 보인다.

표 7. 작문 당 문장 수

	집단	N	중간	기말	기말 표준편차
1. 작문 당 문장 수	통제집단	20	10.75 문장	10.70 문장	2.13
	실험집단	20	9.95 문장	9.95 문장	3.46

했다. 그러나 유창성의 측면에서는 측정 대상이 된다.

19) 형태소 분석기도 '공부하다'의 경우 '공부NNG+하XSV+다EF'처럼 '명사+동사파생접미사+종결어미'로 품사를 부착하였고, '공부 하다'는 '공부NNG 하VV+다EF'처럼 '명사 동사어간+종결어미'로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의 길이인 문장 당 어절 수(<표 8>)를 살펴보면 실험 집단의 유창성 정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문장 당 어절 수의 경우 중간고사에서는 통제 집단이 평균 7.19어절을, 실험 집단은 7.80어절을 산출하여 큰 차이가 없었는데, 실험 종료 후 기말고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실험 집단의 문장 당 평균 어절 수가 통제 집단보다 1.09어절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t=-2.202(0.034)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표 8. 문장 당 어절 수

	집단	N	중간 M	기말 M	기말 S.D	기말 t
2. 문장 당 어절 수	통제집단	20	7.19 어절	7.37 어절	1.38	-2.202*
	실험집단	20	7.80 어절	8.46 어절	1.73	

M=mean , S.D=standard deviation
* p <0.05 , **p<0.01 , ***p<0.001

다시 말해 같은 시간 안에 두 그룹은 실험 집단이 보다 더 긴 작문 텍스트를 생산해냈으며, 이것은 뒤에 살펴볼 복잡성과도 연관이 된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유창성 향상 정도는 기말 시험 이후 수행한 자유 작문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기말고사보다 자유 작문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큰 이유는 기말 시험의 과제 난이도 때문으로 보인다. 기말 시험의 긴 글쓰기는 '① 과거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일, ② 한국에 오기 전(또는 10년 전)과 지금 달라진 점'이라는 주제로 3급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던' 문법을 사용하여 작문을 해야 했다. 통제 집단의 경우 '-던' 문법을 회피하거나 '나는 10년 전에 친구 많이 없었던 그런데 지금 친구 많다(통제집단 학습자1)'와 같은 오류 문장을 생산한 학습자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실험 집단의 경우, 2명의 학습자를 제외하고 오류 없는 '-던' 문법을 사용하였다.

Skehen(1996)은 과제의 유형과 조건에 따라 정확성과 유창성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Larsen-Freeman(2006)에서도 학습자의 문어 발달을 분석한 결과, 정확성이 유창성·복잡성과 다른 발달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기말 시험 과제의 경우 학습자들은 시험 바로 전 주에 '-던' 문법을 학습하면서 정확한 문장 쓰기를 강요받았다. 시험이라는 한정된 조건 안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제한된 주의력을 정확성에 집중하느라 유창성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유 작문의 경우, '3급을 마치며'라는 주제로 조건이나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창성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 8>을 보면 통제 집단의 경우 '총 문장 수'는 중간 시험보다 기말 시험에 −0.47%향상되었으며, 자유 작문에서는 2.71% 향상되었다. 반면 실험 집단은 중간과 기말 시험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자유 작문에서는 19.76%나 향상되었다. 문장 당 어절 수 역시, 통제 집단이 기말 시험에서 2.38%, 자유 작문에서 11.87% 향상된 데 반해, 실험 집단은 기말 시험에서 7.78%, 자유 작문에서 18.34% 향상되었다.

표 9. 각 집단 내에서의 중간vs기말과 중간vs자유작문 평균 점수 향상율

향상율(%)		중간vs기말	중간vs자유
작문 당 문장 수	통제집단	-0.47	2.71
	실험집단	0.00	19.76
문장 당 어절 수	통제집단	2.38	11.87
	실험집단	7.78	18.34

4.2 복잡성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통사적 복잡성 향상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기말 시험과 자유 작문의 '문장 당 절 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기말 시험에서는 통제 집단 1.19개, 실험집단 1.75개로 실험집단의 평균점수가 통제집단보다 0.56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t=-2.873(0.0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유 작문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큰데, 통제 집단은 1.45개, 실험 집단은 2.16개로 실험집단의 평균점수가 통제집단보다 0.71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t=-3.604(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이다.

표 10. 복잡성 결과

	집단	N	중간	기말	자유작문
3. 문장 당 절 수	통제집단	20	0.99	1.19	1.45
	실험집단	20	1.35	1.75	2.16

통사적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복문이 많아지면서 문장의 구조는 더 복잡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절의 개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 때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복문을 만드는 방식보다 내포를 통해 복문을 만드는 방식이 구조상 더 복잡하다. 따라서 절의 갯수뿐만 아니라 절의 내용도 분석하여야 정확한 복잡성의 양상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숙달도가 향상될수록 대등절의 비율인 대등지수(CI)가 낮아지며, 문장 당 내포절의 수가 증가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대등지수, 문장 당 내포절의 수, 절 당 내포절의 수 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내포절과 대등절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내포절과 대등절의 비율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중간	기말	자유작문	중간	기말	자유작문
대등절(대등지수)		26.8% (0.27)	16.1% (0.16)	21.9% (0.22)	28.2% (0.35)	18% (0.18)	22.3% (0.22)
내포절	명사절	8.2%	11.1%	13.4%	7.7%	10.2%	13.8%
	관형사절	17.5%	20.3%	33.2%	29.7%	31.1%	28.2%
	부사절	44.3%	45.2%	30.4%	32.8%	33.2%	32.3%
	인용절	3.3%	7.4%	1.1%	1.5%	7.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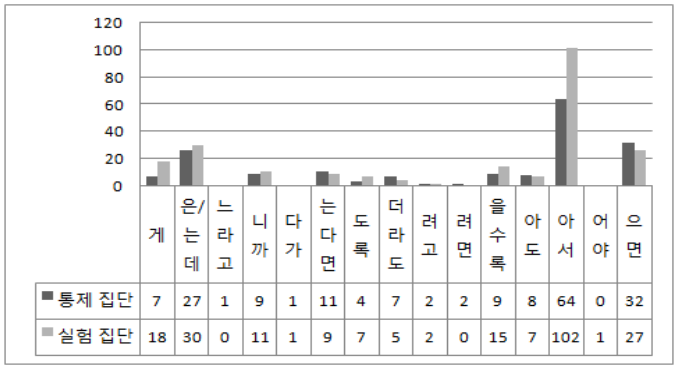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대등절이나 내포절의 비율, 내포절의 유형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어떤 일관된 변화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연구 대상 학습자가 아직 중급 초반이고, 그에 따라 문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를 보완하고자 내포절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았다.

먼저 명사절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모두 '-음(0개)'이나 '-기(22개/24개)'보다는 '-는 것(54개/81개)'을 이용하여 문장을 확장하였고 과제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통제 집단은 명사절에서 약 50%의 오류율을 보여 명사절로 문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관형사절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모두 –은,-는,-던을 이용하여 관형사절을 만들었는데, 통제 집단이 전체 관형사절에서 '-던/었던'을 18%(32개)만 사용한 반면 실험 집단은 36%(99개)를 사용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작문 주제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거

나, 한 학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느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시제만을 쓰는 것보다 '-던/었던'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확장하는 것이 더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명사절과 관형사절의 사용 양상을 통해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복잡한 문장을 생산하면서도 정확성도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사절은 '-게,-은/는데,-느라고,-으니까,-다가,-는다면,-도록,-더라도,-려고,-려면,-을수록,-아도,-아서, -으면' 어미가 나타났다. 이 중 3급에서 배운 어미는 '-게,-은/는데,-느라고,-는다면,-도록,-더라도,-을수록,-아도'이다. 두 집단의 기말 시험과 자유 작문에서 사용한 어미는 <그림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부사절 사용 빈도가 높으며, 특히 중급에서 학습한 '-게,-은/는데,-도록,-을수록' 등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부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집단 간 통사적 복합성(문장당 절 수) 향상 정도는 <그림 7>과 같은데, 양적인 면에서 통제 집단보다 실험 집단의 향상 폭이 크며, 질적인 면에서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의 사용 양상 역시 실험 집단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게	은/는데	느라고	니까	다가	는다면	도록	더라도	려고	려면	을수록	아도	아서	어야	으면
통제 집단	7	27	1	9	1	11	4	7	2	2	9	8	64	0	32
실험 집단	18	30	0	11	1	9	7	5	2	0	15	7	102	1	27

그림 6. 부사절 사용 양상

향상율(%)		중간vs기말	중간vs자유
문장 당 절 수	통제집단	16.81%	31.73%
	실험집단	22.44%	3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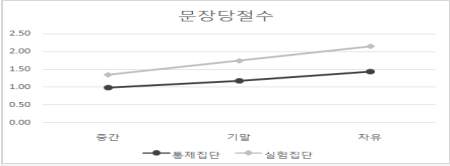


그림 7. 통사적 복잡성 향상

4.3 정확성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통사적 정확성 향상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기말 시험과 자유 작문의 '작문 당 무오류문 수, 문장 당 무오류절 수'를 측정하였다.

먼저 작문 당 무오류문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중간 시험에서는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보다 무오류문 수가 많았으나, 기말 시험에서는 실험 집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 작문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기말 시험에서 무오류문 수가 감소한 이유는 과제 난이도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문장 당 무오류절 수를 살펴보면 기말 시험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문장 당 무오류절 수가 차이를 보인다. 복잡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확대하면서도 오류율은 통제 집단보다 낮았다.

표 12. 정확성 결과

	집단	N	중간	기말	자유작문
4. 작문 당 무오류문 수	통제집단	20	8.6	7.2	8.3
	실험집단	20	7.7	7.4	10.8
5. 문장 당 무오류절 수	통제집단	20	0.7	0.7	1.0
	실험집단	20	1.1	1.3	1.8

두 집단의 정확성 향상 정도는 <표 13>과 같은데 작문 당 무오류문 수, 문장 당 무오류절 수 모두 실험 집단의 향상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통사적 정확성 향상 정도

향상율(%)		중간vs기말	중간vs자유	향상율(%)		중간vs기말	중간vs자유
4. 작문 당 무오류문 수	통제집단	-16%	-3%	5. 문장 당 무오류절 수	통제집단	0%	43%
	실험집단	-4%	40%		실험집단	18%	64%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정확성의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류의 유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오류는 철자 오류, 조사 오류, 시제 오류, 활용 오류, 어휘 오류, 어미 오류, 호응 오류, 의미 오류로 유형화하였는데, 조사 오류는 논항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여 조사를 잘못 사용하여 생기는 오류이며, 어휘 오류는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 전달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어미 오류는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연결 어미 사용, '저는 매일 그림을 그리던'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였으나 문장을 확장하지 못한 어미 사용,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와 같은 서법 오류를 포함한다. 호응 오류는 '제일 큰 꿈이 만화 작가 되고 싶다'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이며, 의미 오류는 문장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나 전체 글의 흐름이나 앞뒤 문장과 전혀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두 집단의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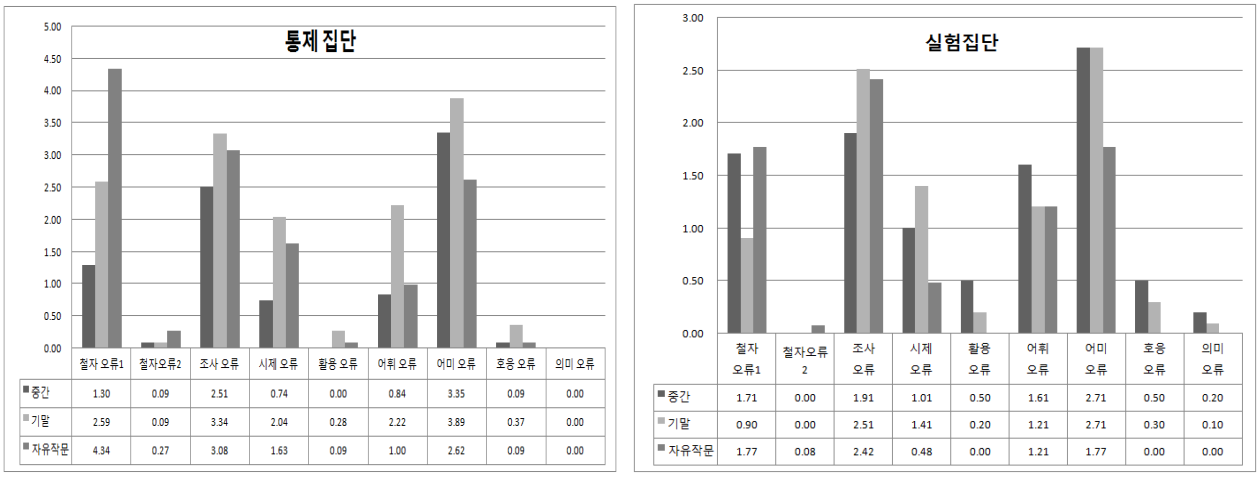


그림 8. 오류 유형

<그림 8>은 두 집단의 문장 당 오류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통제 집단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철자 오류[20]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실험 집단은 중간 시험에서는 통제 집단보다 철자 오류가 많았으나 기말 시험에서 줄어들었다가 작문 길이가 길어진 자유 작문에서 약간 증가하였다. 철자 오류 다음으로 조사오류는 두 집단 모두 증가하였는데,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기말 시험에서 0.83개, 자유작문에서 0.66개 적었다. 시제 오류에서는 통제 집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실험 집단은 기말 시험에서 0.4개 증가했다가 자유작문에서는 크게 감소한다. 활용 오류는 두 집단 모두 낮게 나타났지만, 실험 집단의 경우 활용 오류가 점점 줄어들다가 자유 작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휘 오류, 호응 오류, 의미 오류 모두 실험 집단은 중간 시험에 비해 점점 줄어들어서 중급용 표현 어휘집이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의 쓰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별 표현용 사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현용 사전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학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전은 이해용으로 편찬된 것들이라서 쓰기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오류를 생산하게 하기 때문이며, 수준별 사전이 필요한 이유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숙달도보다 높은 수준의 단어를 검색하고 작문에 사용하지만 , 그 어휘들이 작문 이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어휘가 된다는 점, 또 학습자들이 이미 한 번 학습한 단어를 등한시하고 자신의 숙달도보다 높은 수준의 단어를 찾아 작문을 하면서 어휘 자체에만 집중할 뿐 논항 구조나 문법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작문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출간된 수준별 표현용 사전이 없기 때문에 중급 표현용 어휘집을 제작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알고 있는 어휘를 더 확실하게 학습하여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특히 문형과 문법에 주의하여 작문을 하도록 했다. 5주 간의 실험이 끝난 후 기말 시험과 자유 작문의 긴 글 쓰기를 바탕으로 통사적 숙달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유창성, 복잡성, 정확성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먼저 유창성은 작문 당 평균 문장 수에서 통제 집단이 더 많은 문장을 산출하였으나, 문장의 길이인 문장 당 어절 수는 실험 집단이 월등히 높아 작문을 더 유창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문장당 절 수를 통해 살펴본 복잡성에서도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많은 절을 생산했으며, 내포절의 사용 양상 역시 실험 집단이 더 복잡한 내포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확성은 실험 시작 전에 실험 집단의 오류가 통제 집단보다 많았는데, 실험 종료 후 어휘 오류, 호응 오류, 의미 오류 모두 중간 시험에 비해 점점 줄어들어서 중급용 표현 어휘집이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준별 표현용 사전의 사용이 중급 학습자의 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향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준별 표현용 사전이 편찬된다면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활동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실험 집단의 수가 20명으로 적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사전 사용 이외의 변수-학습 동기, 언어권별, 나이별 차이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점, 중급 표현용 어휘집이 연구자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이라서 불완전한 상태인 점 등은 이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준별 표현용 사전 사용이 쓰기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에 의의를

20) 철자 오류1은 단순 오류로 보아 오류로 분석하지 않아서 무오류문/절에 포함된 것이고, 철자 오류2는 한 음절에 음소 2개 이상의 오류로 의미전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오류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오류의 유형에서는 단순 철자 오류도 포함하였다.

두고자 하며, 앞으로 통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휘적 측면의 질적 향상도와 함께 중급 표현용 어휘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이 쓰기 능력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면 수준별 표현용 사전의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정희. 2018.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발달과 어휘 사용 양상 연구.『이중언어학』71, 38-64.

강현화. 2001. 한국어 학습용 이중어 사전 역할에 대한 논의-반이중어 사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제2차 아시아 사전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아시아사전학회, 44-49.

김영주 · 남주연 · 이선진 · 이선희. 2013. 한국어 숙달도와 산출 능력 간의 상관관계 연구,『국어국문학』164, 209-244.

남주연 · 김양희 · 김영주. 2016. L2한국어 문어 산출에서의 통사 복잡성 측정,『한국어 의미학』51, 21-56.

박지순 · 서세정. 2009. 쓰기 텍스트 분석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통사적 숙달도 측정 연구,『언어와 문화』5.2, 151-173.

박꽃새미. 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사용이 쓰기에 미치는 효과:이중어사전과 단일어사전 사용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배연경. 2008. 표현 활동을 위한 영어 사전의 이해와 활용,『Foreign Languages Education』15.1, 281-307.

배연경. 2013. 사전 사용 연구의 현황과 의의-영어교육에서의 사전 사용을 중심으로-,『한국사전학』21, 108-134.

서세정. 2009. 통사적 숙달도 진단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안의정. 2015. 한국어 표현 사전 편찬의 현황과 전망-정보 항목별 검토를 중심으로-,『한국사전학』25, 162-182.

원미진 · 주우동. 2016. 사전 사용이 읽기 이해도 및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 – 단일어 사전과 이중어 사전 사용 비교,『한국사전학』27, 201-218.

이복자. 2015.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와 말하기에 나타난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의 역동적 발달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이홍식. 2010.『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사전학적 고찰,『국어국문학』162, 171-204.

정영국. 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전망 – 영어 학습자 사전의 경우에 비춰본 고찰,『한국사전학』14, 52-79.

조미옥 · 정영국. 2002. 한영사전의 역사와 성격,『영어교과교육』1.2, 119-142.

최경봉. 2008. 특수사전 편찬의 현황과 과제,『우리어문연구』30, 59-86.

Bishop. G. 2001. Using Quality and Accuracy Ratings to Quantify the Value Added of Dictionary Skills Training Course. *Language Learning Journal* 24, 62-69.

Ellis, R. 2009.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ree Types of Task Planning on the Fluency, Complexity, and Accuracy in L2 Oral Production. *Linguistics* 30.4, 474-509.

Kiel Christianson, 1997. Dictionary Use by EFL Writer: What Really Happens?,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6.1. 23-43.

Larsen-Freeman, D. 2006. The Emergence of Complexity, Fluency, and Accuracy in the Oral and Written Production of Five Chinese Learners of English. *Linguistics* 27.4, 590-619.

Michal Rundell, 1999. Dictionary Use in P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12.1, 35-53.

Nation I.S.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vert Lew, 2016. Can a Dictionary Help You Write Better? A User Study of an Active Bilingual Dictionary for Polish Learners of English.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29.3, 353-366.

Skehan, P., 1996. A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ask-based Instruction. *Linguistics* 17.1, 38-62.

오미나, 강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E-mail: dhalsk@sookmyung.ac.kr